‘2010 WATER KOREA’ 고양시 KINTEX에서 개최

참관객 3만 명 돌파, 국내 최대 물산업 종합 박람회로 안착

국내 최대 규모 물산업 종합 박람회인 2010 WATER KOREA가 지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고양시 KINTEX에서 개최됐다.

WATER KOREA는 2002년 첫 개최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미래 수자원 확보 및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와 더불어 올해 행사에서는 참관객이 5년 연속 3만 명을 돌파하여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물산업 종합 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 협회가 주최하고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유수의 상하수도 관련 기업과 7개 특·광역시 수도사업자 등 약 210개 업체 및 기관이 755 부스 규모로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행사의 개막을 알리는 전시 개막식에는 오세훈 한국상하수도협회 협회장, 문정호 환경부 차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스라엘 대사, 이집트 주택부 차관 등 국내외 인사와 행사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협회장은 “9회째를 맞이한 WATER KOREA는 그동안 물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신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소중한 장이 되어 왔다”고 말하며 “WATER KOREA가 우리나라 물산업의 발전 방향을 선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 의의를 밝혔다.

또한 개막식 당일 저녁에 진행된 ‘상하수도인의 밤’ 행사에서는 수도 서비스 분야에서 업무개선 및 기술발전에 앞장서 온 공무원과 시민을 선정하여 ‘자랑스러운 상하수도인’을 표창하는 수여식이 있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이근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사무관과 김순용 상하수도신문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그 외에도 7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올해 행사에서는 ‘테마가 있는 WATER KOREA’ 란 주제 아래 멤브레인Membrane 특별기획전이 국내 처음으로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최근 고부가가치 및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멤브레인 분야는 향후 유망한 신성장 물산업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코오롱, 아사히 카세이, 웅진 등 국내외 유수 막분리 관련 10개 업체가 32개 부스 규모로 별도의 전시장을 마련했고, 수처리 관련 신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반영하듯 참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주요 행사인 국제상하수도전시회와 함께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 상하수도인의 밤,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물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한·일 하수도 교류회, 2010 미래인재 취업 박람회, 물사진 전시회 등 연계행사도 함께 열려 WATER KOREA를 더욱 알차게 했다. 특히 1,200여 명이 참가한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에서는 상·하수도 업무개선 사례 발표 24편, 상수도 연구발표 17편, 먹는 물 수질개선 발표 9편, 2010 공동추계학술 발표 330편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쏟아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국내 상하수도인들의 총의를 WATER KOREA를 통해 하나로 모으고, 국내 물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국내 상하수도 종사자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평가를 얻었다.